

해외

양돈뉴스

-홍보부-

덴마크, 96년 2/4분기 돼지고기 가격급등세

96년 2/4분기 덴마크의 돼지고기 가격이 4월 초 킬로그램당 10.40Dkr(덴마크 화폐단위)에서 6월 중순에는 11.60Dkr로 상승함으로써 1/4분기와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였다. 연초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9.60Dkr이었던 것이 5월 중순에는 10.60Dkr로 상승했다. 이후 5월 27일에 킬로그램당 10.80Dkr로 상승했고 6월 10일에는 11.60Dkr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가격급등세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전 기간을 통해서 가장 크게 작용한 원인은 EU의 수요가 컸고, 공급이 적었던 것이었다. 공급량 부족에는 독일의 도축량 감소 영향이 컸고 수요증가는 광우병 파동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쇠고기 소비량 급감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돼지고기 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해 그로 인한 가격상승효과가 EU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 수입육 원산지표시 의무화

일본 전국식육공정거래협의회는 광우병파동으로 논란이 되었던 수입육에 대한 안전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육표시 규약을 개정, 원산지표

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월달부터 소매단계에서의 수입식육 원산지표시가 강화되었다.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는 업자의 판단에 맡겨져 왔으나 최근 발생한 광우병 문제로 수입육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져 농수성에서도 수입,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통지했으며 업계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왔다.

일본, 돼지 도체등급 기준 변경

일본 식육격부협회(육류등급협회)는 89년 4월부터 시행해온 돼지 도체등급기준을 개정, 농림수산성의 승인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돼지 도체등급기준은 지육 중량과 등지방두께 외관, 육질중 지육중량과 등지방두께의 기준만 변경되었다.

변경내용을 보면, 박피도체로서 “극상” 등급의 경우는 지육중량이 64~74kg에서 70~78kg, 등지방두께는 1.4~2.0cm에서 1.5~2.1cm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상” 등급은 지육중량이 62~70kg미만과 70~78kg을 모두 65~80kg로, 등지방두께는 1.1~2.1cm와 1.3~2.3cm를 1.3~2.4cm로 각각 상향조정되었다.

일본, 돼지고기 가격 급등세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는 수입관세 감면조치 발동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의 무더위와 동절기의 질병발생으로 일본국내산 돼지출하두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다 7월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SG)로 수입돼지고기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름철 수요기를 앞두고 일본국내의 돼지고기 출하두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나 줄어 도쿄식육시장의 7월 16일 현재 도매가격이 같은날보다 10%나 올랐다.

일본정부는 국산, 수입육이 모두 급등세를 보일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정률법에 따라 수입관세 감면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수입품이 급등세일 경우와 국산 돼지고기가 축산물가격안정법에 따라 안정 상위가격(현재 1kg 515엔)을 초과했을 경우인데, 식육도매업자들은 현재까지 이 두가지 요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서 결국은 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미국 돼지생산량 감소 전망

96·97년도 미국의 육류 예상생산량은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예상량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96년 미국의 육류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 약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 97년에는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의 경우 96년 예상 생산량은 6월예상보다 약 3% 감소했으며, 97년도 예상 생산량은 5% 이상 감소했다. 또한 돼지고기 공급량은 예상보다 더욱 부족할 것으로 보여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96년 상반기 양돈농가 수익 증가

96년 상반기 미국의 돼지 가격 상승세가 사료비용 상승과 생산자 수익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6월에 돼지 가격 상승세가 좀 누그러졌지만 사료비용 상승은 계속되어 생산자 수익을 계속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96년 옥수수와 콩 수확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년 하반기 사료비용이 감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돼지가격 하락 예상과 함께 생산자 수익을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96년 상반기 미국의 돼지와 돼지고기 평균가격은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수요가 강세를 보였고 공급량 감소폭이 예상보다 커져 애당초 기대 이상으로 상승했다.

미국, 가축분뇨 환경파괴문제 제기

미국 축산업 농가의 가축류와 가금류 사육규모가 증가하면서 집약적 동물 사료공급 체제와 관련된 동물분뇨의 환경파괴 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방, 주, 지방 정부에서는 동물생산과 분뇨처리, 환경파괴에 관한 법규정의 실행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동물분뇨를 주로 비료나 객토용으로 사용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인데 적은 비용으로도 토양의 유기영양물을 증가시키고 경작지를 비옥하게 만들 수 있어 흔히 이용되고 있다. 앞으로 축산업계의 효율적인 동물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발달이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OECD, 2000년대 돼지생산 0.5% 증가 전망

사료가격과 환경규제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때 OECD 가맹제국의 양돈, 가금산업은 금후 완만한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OECD 가맹제국의 1995~2000년의 연간 평균 돈육생산신장은 0.5%에 머물 것으로 현 단계에서는 추정되고

있다. 1990~1994년의 평균신장률은 1%였다. 한편 가금은 1990~94년 평균신장률 4%였는데 1995~2000년에는 3%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돼지, 닭 생산의 신장이 축소돼도 생산자 수익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EU는 공통농업정책(CAP) 효과로 인해 사료가격이 1993년 이전보다 저렴하여 수익을 얻기 쉽게 될 전망이다. 미국은 생산성을 높혀 비용을 줄이고 종전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수익을 올릴 장치가 대규모 생산자 중심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후 2000년까지의 OECD 가맹국들의 소비성향은 돼지고기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가금은 건강면을 고려 쇠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계속 증가해 나갈 전망이다. OECD 비가맹국은 개인 소득의 증가와 고기수요의 증가로 돼지·가금 공히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 96년도 돈육수출은 세계 5위 예상

1995년도 사료값 인상등으로 도축수도 증가하고 생체가격도 전년대비 20%나 하락하고 생산자 수지폭도 적어지는 등 돼지사육을 기피하는 농가수가 증가하여 정부에서 생산자 보호책으로 돈육시장에서의 생돈 수매를 촉진하기도 했다.

○ 돼지사육두수 및 수출량 및 1인당 소비량 추이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사육두수 (천두)	362,408	369,646	384,211	393,000	414,620	426,000
도축두수 (천두)	328,971	351,697	378,238	421,030	485,000	500,000
생산량 (천톤)	24,523	26,353	28,544	32,048	37,000	39,000
수출량 (천톤)	268	117	150	195	200	210
소비량 (천톤)	24,255	26,236	28,394	31,853	36,800	38,790
1인당(kg)	21.1	22.4	23.9	26.4	30.1	31.3

* 사육두수는 각년 1월 현재 95년도 추정, 96년도 예측

1995년 도축수는 4억8천500만두로 전년대비 15.2%가 증가하였다. 정부는 당초 95년도 돼지사육두수를 4억 500만두로 추정하였으나 그후 공식 통계에 의하면 당초추정을 약 1천만두 상회한 4억1천462만두로, 이것을 기초로 96년도 사육두수도 전년대비 2.7% 증가한 4억2천600만두로 상향 조정하였다. 96년도 수출예정량은 전년대비 1만톤이 증가한 21만톤으로 덴마크, 미국, 캐나다, 대만 다음으로 돈육수출량이 많다.

싱가포르 식품회사 중국에 양돈장 건설

땅이 협소해 양돈을 할 수 없는 싱가포르의 한 식품회사가 세계 최대 양돈장을 중국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지가 2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인터스트리얼사의 계열사인 싱가포르 푸드 인더스트리(SFI)사는 상해 포동에서 15km 떨어진 양자강 어귀의 송명도에 또다른 싱가포르의 탄 체 후아트 지주회사와 51대 49의 합작비율로 이같은 세계 최대 양돈장을 건설하게 된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SFI사가 세우게 될 'ST-다 양 푸드' 양돈회사는 초기투자액이 1천만 싱가포르 달러 (56억8천만원)인데 SF사 전무는 "양돈관리, 질병통제 등에 대단위 양돈의 세계 정상급 기술과 축적된 국내 경험을 총 동원해 이 양돈사업을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포르투갈, 네델란드산 돼지 수입금지

지난 해 8월 네델란드에서 수입한 돼지가 수포성 질병(SVD, Superior Vesical Disease)을 전염시킨 사실이 최근 포르투갈의 한 마을에서 돼지 6천마리가 사망하는 사태를 계기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있다.

포르투갈 남부 알렌테조지방에서 지난해 8월

수입해서 키운 돼지가 이 질병에 감염돼 도축되어 완전소각 되었다. 포르투갈의 식품생산보호 연합회와 검역당국이 이를 감독하고 있으며, 포르투갈 축산업협회(SUINIMOR)는 전염성이 높은 이 질병이 확산될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 포르투갈에 전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입된 18마리중 3마리가 이 질병의 바이러스를 유포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포르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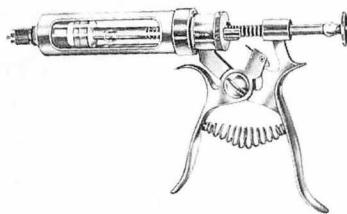
갈 당국의 의뢰로 조사를 담당한 영국 연구기관은 밝혔다. 또한 이 연구기관은 전염성인 수포성 질병이 돼지에게는 빠르게 전파 되지만, 사람에게에는 무해하다고 발표했다.

SVD는 돼지의 콧잔등, 허, 발등에 수포가 생겨 온몸에 퍼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사실이 드러나자 포르투갈 당국은 즉각적으로 네델란드 돼지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네델란드는 현재 평균 돼지 6백만 마리를 수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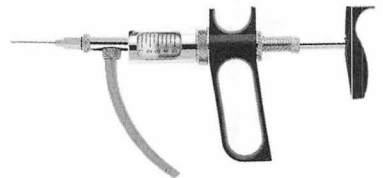
각종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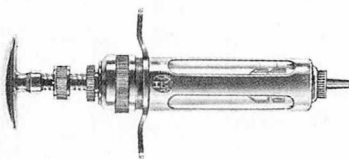
① FERROMATIC 주사기(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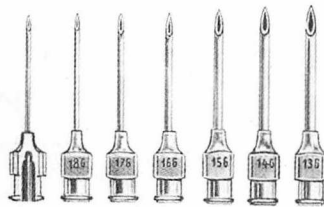
② REVOLVER 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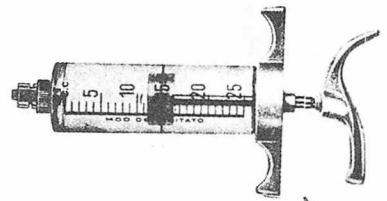
③ SOCOREX 연속주사기(1-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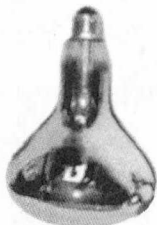
④ 철제주사기(10, 2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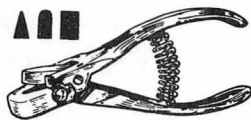
⑤ HENKE 주사침



⑥ P.V.C 주사기(반영구)



⑦ 적외선전구(수입품)



⑧ 이각기(귀절단)

KW 경 화 축 산

주소 : 서울 · 마포구 동교동 164-31
 ☎ 338-2548, 7013, 338-5510, (야간) 749-1465
 FAX : (02)338-1020, (0349)32-1787